현대소설연구(제92호)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http://doi.org/10.20483/JKFR.2023.12.92.313

민족에서 블록으로

－이순탁의 『최근 세계 일주기』의 아시아 인식 전환에 대한 연구

차 혜 영*

요약

본고는 이순탁의 1934년 여행기 『최근 세계 일주기』에 나타난 아시아 지역 인식에 대한 연구이다. 그의 여행기에서 동경, 상해, 홍콩, 싱가폴은 서구의 경제상황 변모,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극심한 우려 이후에, '그럼 우리는?'이라는 질문과 대답 속에 단행본에서 추가되어 서술된 지역이다.

1930년대 세계경제 변화의 시기에, 아시아 지역 곳곳은 일본의 전쟁 선택에 의해 거대한 전환을 맞이했고, 일본권 내에 속한 조선인의 아시아 관계양상도 많은 변화를 보였다. 본고는 경제학자 이순탁이 이 변화를 어떻게 수용해, 아시아 인식을 수정 전환해갔는지를 그의 세계여행기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의 아시아 지역 여행기에는, 일본의 경제적 이익이 위기에 부딪히며 시행된 중국 침탈, 동남아 시장 확대 노력으로 이어지는 경로에 대한 동의와 긍정이 관철되어있다. 이는 상해 경유지에서 드러낸 중국인 혐오와 중국 내셔널리즘 회피, 비난, 인종적 편견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1932년 기점으로, 중국(상해)의 조선인 사회의 민족주의적 정치색파의 단절 및 상업주의적 기업가적 발전 지향으로의 변모 주장과 연결되는 기조이기도 하다. 또한 동남아시아 지역을 대하는 우정, 환대, 편안한 공존의 정서는, 일본의 외지들의 연결이라는 감각하에 자기를 배치하는 정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도와 만주 서술에서 보인 일본 시장 상실의 위기에 대한 초조함이나 만주국 불승인안 결정에 대한 자극적이고 수사적인 울분의 감정은, 이순탁의 아시아 지역 관찰과 기술의 중심축을 잘 보여준다.

이순탁 여행기의 아시아 지역인식과 기록은, 식민모국의 패권확대에 자기 위치를 설정한 식민지 경제학자시선 변경과, 대공황 이후 "일본 패권 내 동아시아 지정

* 한양대학교 한국언어문학과 교수

학”의 변경이 연동되며 만들어낸 1932년의 전환의 지점을 잘 보여준다.

아시아 지역을 바라보는 이런 전유방식은, 1920년대와도 다르고, 해방 후 우리에게 익숙한 저항적 민족주의 관점에서도 이질적이다. 또한 월북한 맑스주의자라는 이념적 일관성에서도 매우 불편한 단절 혹은 협곡 같은 지점이다. 이순탁을 포함한 유럽행 여행기들의 경유지 아시아 기록은 바로 그 ‘단절이 일어난 협곡 지대’의 실체성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자료적 가치를 갖고 있다. 본고는 그 하나의 대상으로 이순탁의 여행기 중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주제어: 민족, 블록, 통제경제, 대공황 이후 일본 패권내 동아시아 지정학, 이순탁, 옥관빈, 유럽항로 아시아 경유지, 경제적 생존주의, 제1차 상해사변, 일화배척(日貨排斥), 상해한인사회, 외지(일본 내지/외지), 만주국 불승인, 일인통상조약

목차

1. 서론-이익이 바뀌면 지도가 바뀐다
2. 쇼와(昭和) 10년 전후의 변화, 정치적 파시즘과 통제경제의 결합-동경
3. 먼 곳의 우리도 바뀌어야 한다, 상해 한인사회의 교체와 중국 혐오-상해
4. 연결된 외지(外地)들, 따뜻한 시장과 자원개발의 미래-동남아시아
5. 가지 않고 쓴 곳, 빼앗긴 시장-인도와 만주
6. 결론-민족에서 블록으로의 전환 사이, 협곡 혹은 틈새

1. 서론-이익이 바뀌면 지도가 바뀐다

본고는 이순탁의 1934년 여행기 『최근 세계 일주기』에 나타난 아시아 지역 인식에 대한 연구이다. 이순탁(1897~?)에 대해 알려진 전기적 사실은[1]은, 1920년대 맑스주의를 공부한 경제학자, 1933~34년의 세계여행[2] 및 여행기 출간, 1938년 ‘연희전문경제연구회 사건’ 관련 투옥 및 해직,

1939년 백남운`노동규 등 연전상과 교수들 함께 전향과 출옥 및 전시협력, 그리고 해방기 중간파로서의 이승만의 경제 브레인 이력 및 월북이라는 몇 가지의 점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점들은 일직선으로 연결하기가 쉽지 않다. 생몰연대와 북한에서의 행적 등 사실기록의 부재는 물론, 1920년대와 1930년대의 현격한 차이, 투옥과 전향, 남과 북에서의 경제브레인 역할 등은, 민족, 분단, 좌우, 진보성 등 어느 면에서도 매끄러운 일직선의 서사로 포괄되지 않는 많은 단절과 복잡한 지층들이 내포되어있다.[3)]

그래서 이순탁과 그를 둘러싼 시대를 '변화와 확장성' 속에서 바라보는 일은, 사실은 민족, 분단, 좌우, 진보성이라는, 그동안 역사적 사실태를 '안전하게 재단해온 프레임'을 의심하는 일과 동전의 양면이기도 하다. 한국근대 특히 1930년대의 해외여행기는, 이 외부로의 확장과 그 외부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내부를 상상하는 프레임 교체에 직면했던 흔적을 내포

1) 그의 북한에서의 전기적 행적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부족한 상태로나마 그에 대한 전기적 언급들로는, 홍성찬, 홍성찬의 해설, 「해설, 일제하 한 진보적 지식인의 사상과 행동」(이순탁, 『최근세계일주기-일제하 한 경제학자의 제국주의 현장답사』(학민사,1997년), 윤기중, 「이순탁」, 『계간연세진리자유』, 1993. 봄, 「현대사 인물발굴-좌우합작운동에 일생을 바친 국내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거장」, 『민족21』(2007.2) 등이 있다.

2) 당시 연희전문 상과(경제학) 교수였던 이순탁의 세계여행은 안식년 기간(1933년 4월 22일~1934년 1월 20일) 9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3) 이 단절과 지층은 이순탁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수양동우회 사건이나, 조선어학회 사건, '연희전문경제연구회 사건', '원산민족해방전선 사건(경성제국대학 출신 맑스주의자 이강국 등 연계)' 등 극좌와 극우를 막론하고 일제 검거가 진행된 전시체제기의 탄압이, 구체적 비교분석 이전에 쉽게 '탄압받은 민족주의자'로 정체성 부여되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리고 일제말 전쟁기의 폭압적 상황에서의 탄압을 통해, 바로 직전 시기까지의 기나긴 '식민지 내부의 시간' 동안의 사상`세계인식이 정치하게 탐구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 과정에서 정인섭처럼 적극적인 친일을 했으면서도 '조선어학회'사건 투옥경험이 해방기에 알리바이로 작동된 사례도 많다. 이런 사례는 여전히 '투옥=친일여부'로 재단하는 한국근대사의 프리즘 속에서, 긴 시간 '식민지이자 동시에 스스로 근대를 만들었던 시간'을 정치하게 바라보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남한에 정착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한 지식인의 경우나, 월북해서 초기 북한정권의 브레인으로 활약하는 경우나 마찬가지이다.

하고 있다. 때문에 이 분야 연구는 지식, 사상, 경제 위기와 세계전쟁으로 치닫는 현실태, 그 안에서의 자기 위치조정이라는 정체성 변화를 고찰하는 일과 연결될 수 밖에 없다.

본고는 이순탁 여행기에 대한 두 번째 연구로서, 아시아 즉, 동경, 상해, 홍콩, 싱가폴 등의 지역에 대한 그의 인식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당시 그의 여행기는 먼저 1933~1934년 조선일보에 8개월간 연재된 후, 1934년 『최근세계일주기』라는 제목의 단행본으로 발간되었다.[4] 조선일보 연재본과 단행본의 가장 큰 차이는 아시아 지역의 기록 유무이다. 연재시에는 유럽, 미국 등의 경제상황 변모, 영국 프랑스 등의 파운드 블록, 금본위 경제, 공황 및 보호무역주의 대응 세계경제회의 결과에 대한 좌절과 극심한 우려, 독일 이탈리아 등 후발 국가의 파시즘과 통제경제를 통한 경제회복의 고무적인 결과에 대한 상세한 서술, 미국의 뉴딜정책이라는 공황대응 국가주도 경제 정책에 대한 서술 등 주로 경제 관련 관찰 기록이 주를 이루었다. 연재시기에 빠져 있던 아시아 지역은, 단행본 발간시 새롭게 추가되어, 세계여행기로서의 체계를 갖추어 발간되었다.

따라서 '아시아 지역'은 물리적 여로 및 단행본 체제에서는 여행의 시작 부분에 놓여 있지만, 그 아시아 지역에 대한 '사유`판단`서술'은, 유럽과 미국의 경제정책과 그 영향, 세계체제의 변모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 쓰여졌다고 할 수 있다. 즉 사유상에서 아시아와 조선위치는 세계정세 판단 '이후'이지만, 책에서 노출된 '여로 형식'에서는 '시작'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제정책 비교 중심으로 서술된 유럽과 북미 부분에서는 관찰과 조망이라는 인식적 객관적 성격이 강한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행하고 글쓰는 개인 위치의 직접적 관련성이 두드러

4) 1934년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 『최근세계일주기』로 단행본을 발간했고, 1997년 『최근세계일주기-일제하 한 경제학자의 제국주의 현장답사』(학민사)로 재발간되었다. 본고에서 인용은 학민사 본을 저본으로 하였다.(이순탁, 『최근세계일주기』, 학민사, 1997, 본문에 페이지수만 표기함)

지지는 않았었다. 반면에 아시아 지역의 경우는 이런 세계적 판도 변화를 조망하는 차원은 생략된 채 전제되어 있으면서, 서구에서와 달리, 매우 감정적이고 직접적인 서술이 많다. 이 감정과 직접성은 '나', '우리' 즉 식민지 조선의 미래, 그 우리를 설정하고 연결성을 재편성하는 판단과 연계되어있다.

그러므로 아시아 지역은, 여행 여로상의 필수 코스로서의 경유지이기도 하지만, 그곳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기술하는가는 기존의 연결(지역-정치) 프레임이 파괴되고, 새로운 연결(지역-경제) 프레임에 의해 다른 지역상상이 개입되는 곳이다. 특히 3post(제1차 세계대전 이후, 1917년 소비에트 혁명이후, 3.1/5.4운동 이후) 시대, 일본의 국제협조주의 외교 시대가 종말을 고한 이후, 1930년대 전반기는, 대공황 이후 새롭게 재편되는 블록이라는 경제장벽, 이에 따른 일본의 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중국 침략이 진행되면서, 한`중`일 사이의 급격한 관계 변화가 진행되던 시점이다. 이런 시기에 식민지 근대 지식인의 유럽항로상 '경유지 아시아 여행기' 부류는 그 범주적 공통성 내에서도, 여행자들 개개인 주체의 전문분야 직업이나 이념, 여행 시기의 정치 문화적 맥락, 이에 대한 여행자 개인의 위치설정, 언어능력, 경제적 계급적 차이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편차를 보여준다.[5)]

1932년 전후를 기점으로 아시아 표상은, 아시아 지역에 기존까지 존재했던 조선인 네트워크 및 해외 독립운동 세력의 거류지라는 위상, 영국 및 프랑스 등 열강에 의해 식민`반식민 지배를 받은 공통의 역사에 유지되었던 기존 1920년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 시기 이후의 아시아 표상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구 영국권 식민지였던 지역으로 확장되며 발전해온 일본의 대외 무역 시장 및 이시기 들어 그 해외시장이 축소되는

5) 식민지 시대 여행기 중 이 부류는 비교적 시대별로 고르고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차혜영, 「3post 시기 식민지조선인의 유럽항로 여행기와 피식민지 아시아연대론」, 『서강인문논총』 47, 2016.12 참조

상황, 또 일본이 주장하던 소위 만몽 특수 권익의 위기 및 이에 따른 연이은 중국 침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의 자본주의 발전과 식민 모국 일본의 경제적 이해관계의 재편성, 이와 연관된 조선 부르주아 민족운동의 방향 및 언론 매체와 지식인 담론장의 태도 변화 등과 연관되며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아시아 표상은 많은 변화를 보인다. 예컨대 '만선', '일만지'라는 새로운 아시아 지역경제권 설정, 이를 통해 일본의 중국침략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식민지 조선이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 '조선공업화'나 '농공병진', '만주붐'의 기대 등 아시아 상황을 바라보는 조선 지식인 여행자들은 극단적으로 상이한 인식차이를 보여주기도 한다.[6)]

이순탁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유럽이나 북미처럼 무역수지 등의 객관적 자료 중심의 관찰, 판단, 인식에 머물지 않는 감정적 직접성의 면모를 보인다. 공황과 보호무역시대라는 새로운 전환의 시기에 "그럼 우리는?"이라는 질문 하에 보다 직접적인 감정적 확신과 선택, 실천적 요구나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 있다. 이는 서구여행기와는 다른 직접적 감정과 원색적이고 공격적인 특징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이순탁이 여행기를 출간하면서, '최근', '새로운'을 강조하며 독자들에게 긴급하게 시야변경을 요청한 근본적 문제의식도 바로 이 아시아 지역, 조선이 중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순탁의 여행기를 아시아 지역 기록을 중점화해서, 1932년 전후의 기점 변화된 아시아 상황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6) 예컨대 「유구도중기」(1934)에서, 조선어학회 출신의 부르주아 언어민족주의자인 김선기는, 이순탁과 같은 시기 같은 여로를 여행하면서, 중국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침략자 일본의 얼굴을 마주하고, 윤봉길 같은 조선청년에게 연대의 손을 내미는 중국 및 약소민족들을 마주한 경험, 혼란과 충격과 고민을, 검열로 지워진 흔적을 노출시키며 여행기를 쓰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차혜영, 「식민지 조선의 언어민족주의자, 인도양 위에서 약소민족을 만나다. -김선기의 「유구도중기(遊區途中記)」(1934)연구」, 『비교한국학』 31, 2023.12 참조

2. 쇼와(昭和) 10년 전후의 변화, 정치적 파시즘과 통제경제의 결합-동경

1) 정치적 파쇼화와 경제 번영

세계 여행을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먼저 부산에서 관부연락선을 타고 일본으로 가서, 요코하마, 코오베 등지에서 국제선 선박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대부분 일본 유학생 출신인 지식인 여행자들은, 학창 시절을 보낸 곳을 첫 번째 경유지로 삼아, 학교, 친구, 스승 등 유학시절을 더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순탁 역시 교토에 먼저 들러 수감중인 스승 맑스주의자 가와카미하지메(河上肇)의 안부를 확인한다. 여기서 그는 "요새는 강단에서 공산주의라는 언사, 맑스의 이름도 꺼내지 못하는" 상황을 전해 들으며, "하상(河上) 박사가 동 대학에서 교단에 서던 때와 금일과는 얼마만한 대조이냐. 팟쇼의 역화(力化)가 이다지 심하리라는 것은 꿈에도 뜻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격세지감을 느낀다. 1920년대 초반 다이쇼 시대, 세계개조의 시대에 일본에서 대학을 다녔던 지난 날의 맑스주의자 이순탁은, 전세계적으로 우경화하고 파쇼화하는 현상이 일본도 예외가 아님을 확인하는 것이다.

또 그는 교토를 떠나 요코하마와 도쿄에서는 메이데이 행진을 목격한다. 그러나 그 메이데이 행진에서 이순탁이 목격한 것은, 노동자의 시위나 포스터 보다, '메이데이는 공산혁명의 준비행동이다. 국민은 모든 수단을 써서 이 매국행위를 저지하자. 메이데이 배척 -적화방지단(赤化防止團)'- 등의 "앤티메이데이의 포스터가 거반"인 광경이다. 이런 광경을 보면서 언론과 사상의 자유의 퇴보, 정치적 민주의의의 퇴보, 세계적 파쇼화가 일본도 비켜가지 않음을, "활기 띤 행렬의 시대는 이렇게 바뀌었구나"라면서 실감한다.

그러나 정치적 파쇼화와 달리, 경제적 차원에서 이순탁이 목격한 일본

은 신선한 충격과 긍정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세계 여행에 나서면서 그가 중요한 관찰 목표로 삼은 대상은 경제발전 정도 및 경제정책이었고, 이 때문에 그는 일본에서도 "동경 시가를 프로그램을 정해가지고 매일 조사" 했다. 그가 관찰한 동경은 경제위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 "첫째 교통의 빈번- 전차 버스, 택시, 인력거, 지하철도, 성선(省線), 廣軌線, 둘째 카페, 바, 캬바레, 레스토랑, 다이닝홀 .....인구5백만을 가진 대동경, 집집마다 손님이 벅적 벅적 동경 구경와서 누가 불경기를 말하랴,.... 셋째 스타일의 모던 풍, '통 넓은 바지, 울긋불긋한 넥타이, 기묘한 스타일' 마지막으로 고하대루(高廈大樓)의 상점, 공장, 번화한 시가..... 나는 마루노우치의 즐비하게 들어서있는 빌딩을 일삼아서 이집저집 승강기를 타고 조사해보았다. 혹시나 빈방이나 있나하고, 아니다. 그 넓은 구역에 빽빽이 들어찬 빌딩에는 거의 빈방이 없다시피 무슨 사무소로 채워져 있다. 비즈니스가 그만큼 복잡하다는 증거다.....공장지대에는 노는 공장이 없다하며 특히 비어공장은 아메리카에의 수출로 인하여 심히 바쁘다. "[7]- 25-26

이처럼 그는 동경의 경제적 발전의 면면을 세밀하게 묘사 전달한다. 예컨대 동경의 카페, 캬바레 등에 대해서 당대 조선인들은 대부분 그 퇴폐성에 대해 비판적 시선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음에 비해, 이순탁은 그것을 경제적 활력, 번영의 관점에서 접근하다. 긴자의 카페를 직접 들어가 가격을 알려주고, 마루노우치가의 빌딩들이 공실 없이 비즈니스가 활발하다고 전한다.

당시 대부분의 일본여행기들이 사치와 퇴폐, 물질문명의 첨단을 걷는 모습에 대해 현혹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도덕적으로 경계하는 양가적

7) 이순탁, 『최근세계일주기』, 1934년 한성도서 주식회사, 1997년 학민사 재발간, 이후 인용은 학민사 본의 페이지만 표기함.

태도로 대응한 것과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상업적으로 번영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 그는 사치와 향락, 긴자의 퇴폐적 문화에 대한 도덕적`계몽적 비판이 없다.[8] 식민지인으로서 지배국 중심부에서 느끼는 열등감과 소외감도 없다. 자신이 매일매일 프로그램을 짜서 직접 조사해본 '경험치'를 강조하며 경제적 활력, 세계적 불황과 아랑곳없다는 듯 번영을 누리는 현재, 미래의 발전가능성의 차원에서 당시 일본 자본주의의 현장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순탁의 이러한 판단은 실제로 당시로서는 매우 정확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대공황으로 세계무역이 크게 위축되었을 때 유독 일본 제품만은 면직물과 잡화를 중심으로 세계시장으로 활발히 진출했었다. 일본 제품이 전세계로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1931년 12월 금본위제를 포기하면서 엔화의 가치가 하락하였고 이것이 수출가격을 하락시켰기 때문이다. 미국과 같은 방대한 국내시장도 영국 같은 전세계 식민지도 보유하지 못한 일본이 엔블록(일만블록〉일만지블록〉대동아공영권)을 형성하여 조선, 대만, 만주 등을 경제 세력권 내로 편입하였고, 나아가 동남아시아 지역을 원료공급지 및 제품판매시장으로 만들어냈다. 이러한 일본의 저가 상품 공격과 빠른 경제회복, 엔블록권 확대는 세계도처에서 구미제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충돌해 나갔다.[9]

8) 일본여행기에서 동경 긴자의 사치부박한 향락문화를 비판하는 여행기들은 대부분 일본만을 여행한 저자들의 글이다. 반면 세계여행기 저자들은, 그들의 여로 상에서 동경 이후, 국제도시 상해, 베를린, 특히 파리로 대표된 세계적 메트로폴리스에서, 충격적일 정도로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사치스러운 대도시 오락 문화를 접하고 그것을 여행기로 썼던 저자들이다. 이들 세계여행자들의 글쓰기에서는 동경의 긴자 정도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이순탁도 이와 같은 맥락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세계여행자들의 서구 메트로폴리스의 오락문화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는, 차혜영, 「대공황 이후 블록경제하의 유럽여행과 서구시좌의 변경, 1936년 정인섭의 유럽여행체험에 대하여」, 『비교한국학』, 2015.12, 참조, 당시 세계적 대도시의 오락문화에 대해서는 도널드 서순, 『유럽문화사3, 4』, 뿌리와이파리, 2008, 참조

9) 서정익, 「세계대공황기(1929~1936) 일본의 무역구조와 무역정책」, 『응용경제』 5권1호, 2003,6월, 57면.

2) 빈민굴을 보는 시각

그의 일본 기행문에서 특이한 것은 닛포리(日暮理) 빈민굴이다. 그는 동경의 경제적 발전을 과신하는 자신의 시각이 편향되었을지에 대한 독자의 비판, 그에 대한 반례를 준비한다. 그것은 닛포리(日暮理) 빈민굴 일화이다.

> "이것은(동경의 자본주의 발전상) 대동경의 일면상이지마는 나는 동경에 다른 일면이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나는 심군과 같이 동경의 빈민굴을 방문했다.....이 빈민굴에는 일본 감리교에서 설립한 사단법인 일모리(日暮理) 애린단이라는 것이 있어서 가정지도, 진료, 오락, 교육 등의 사업을 경영하는데, 현재 양호한 성적을 거두는 모양이다. 우리는 이 애린단의 주사(主事)를 방문하고 주선을 청하여 저들의 실생활의 내면을 엿보았다." -27

이후 그는 닛포리 빈민들의 음식, 의복, 주거 등을 상세히 보고한다. 빈민굴의 불결함, "극도의 생활고로 말미암아 인간으로서 가져야할 애정, 반항, 희망 등이 빠져버린, 실로 인간 형상을 한 동물" 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이순탁이 이 일본 빈민굴을 통해 하고자하는 이야기는 따로 있다. 그는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고싶어 할 분이 있을 것이다" 라면서 대중적 호기심을 경계한다. 상세한 조사 관찰을 통해 그는, 화려한 대동경의 다른 암면(暗面), 발전 뒤에 은폐된 궁핍, 빈부격차 등에 대한 호기심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려는 동행한 심군 및 조선의 독자대중에게, 그는 일본 빈민굴에 대한 자신만의 입장과 해석을 드러낸다.

> "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 얼마나 참혹한 지를 보고 싶어 할 분이 있을

>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한가지 말해둘 것은 우리 조선에는 소위 슬람(slum)이나 세틀먼트(settlement)니 한 것이 아직 없지마는 이와 유사한 것은 근대에 발생한 움집이라든가 재래의 소위 행랑이라든가 한 것이 그것이다. 그 발생원인은 일본과 근대문명 각국의 그것과는 딴판이지마는, 계급으로 논하면 유사한 것이다,
>
> 이네들의 생활양식과 비교해보면 일본의 빈민굴은 큰 부락을 할거해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의 눈에는 심히 외관상 불결하고 더 참혹해보이나, 그러나 유일한 차이는 저네(일본빈민)들에게는 아무리 저급의 노동일망정 할 것이 있든지, 또는 없더라도 정부에서 알선하여 일주일에 며칠씩이라도 할당(와리아떼)제로 일을 준다는 것과, 아무리 '즈께'일 망정 먹는 것을 보니까 쌀밥에다가 고깃국(생선)은 끼어있고, 살림도구는 고운 것은 아니고 조잡하더라도 수효로 보아서 복잡다종류하다는 것이다. ...심군도 또한 이에 동의 하였다"-28-

그는 닛포리 빈민굴을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노동자 거류지(세틀먼트)와 대도시 주변부에 생기는 빈민가(슬럼)라는 보편적 현상으로 본다. 즉 일본 빈민굴을 근대 자본주의 발전과정의 필연성 속에 위치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전제하에 비교할 때, 이 빈민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책 및 실제 삶의 미시적 구체성을 비교했을 때 매우 양호한 상태라는 것이다. 즉 정부에서 알선한 일자리, 그 일자리가 부족할 경우 의무적 할당제를 통해 빈민들에게 최소한의 일자리를 비롯한 실업구제 책, 이를 통해 최저생계의 삶을 관리하는 정책의 시선에서 비교 평가한다. 또한 그곳에서 일본 빈민들의 삶을 쌀밥, 고깃국(생선즈께), 살림도구의 예를 통해 일본 최하층 빈민들의 삶의 질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심군도 동의하였다고 언급함으로써 자기주장을 강화 보증하기도 한다.)

당시 대공황의 후유증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실업으로 고통받는 뉴스, 식량 배급과 구직을 위해 길게 줄을 선 사람들 사진이 자주 보도되고 있었다. 공황, 실업, 빈곤은 전세계 동시적인 현상이었고, 이것을 이순탁은

누구보다 잘 알고, 그것을 탐사하고자 세계여행을 떠났고, 다녀와서, 여행기 여로의 최초부분으로 설정된 아시아, 동경을 쓰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영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목격한 '페니 플리즈'를 구걸하는 걸인들, 담배꽁초를 줍는 런던 거리의 사람들, 무료급식소에 줄선 사람들을 목격하고 극심한 충격을 받았던 이순탁에게[10], 동경 북부 닛포리 빈민굴은 실업구제와 빈민들의 한정된 조건 속에서 일상적 삶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해나가는 일본의 성공적인 도시빈민 관리 시스템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순탁은 이 일본 여행에서, 당시의 대중화된 일본 표상 두 가지와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는 태도를 보여준다. 먼저 기존 일본 여행기에서 동경 긴자(은좌)의 화려함, 퇴폐와 향락 문화는 일본 여행담의 단골 소재였다. 관동대지진 이후, 도시재건을 통해 화려한 모습으로 일신한 대도시 동경의 화려함은 '대동경'이라는 용어로 자주 소개되었고, 유치진, 김진섭, 박영희 등의 문인`지식인들은 일본 여행담에서 필수 관광코스로서 '말로만 듣던 긴자'를 눈으로 본 것, 그 화려함에 어안이 벙벙했던 경험, 그리고 공통적으로 여행의 말미에서 도덕적 퇴폐에 대한 비판과 식민지인이 갖는 열등감과 우울함의 정서를 공통적으로 보여준 바 있다.[11] 또한 마굴류 스토리 역시 유행처럼 소개된 바 있다. 아편굴, 화교 거리, 빈민굴 등에 대해 동아일보 등의 신문 및 『개벽』과 『별건곤』 에서는 아예 '경성 다섯 마굴'로 소개하고 선정적 호기심과 심층 탐사 취재 르뽀가 결합된 도시 뒷골목 취재기[12]를 연재한 바 있다.[13] 즉 대도시 뒷골목의 빈민굴은 상

10) 이순탁 여행기의 영국 부분 참조, 차혜영, 「1930년대 자본주의 세계체제 전환과 동아시아 지역패권의 지정학-이순탁의 『최근세계일주기』를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24-3, 2016.12

11) 식민지 시대 문인들의 일본 여행기에 대해서는 차혜영, 「1930년대 일본체험 회고담 연구1, 로맨스의 공통기억과 식민지의 문화적 위치」, 『한국언어문화』 46집, 2011년.12월, 심원섭, 『일본 유학생 문인들의 대정`소화 체험』, 소명.2009 참조

12) 「상상 밧갓 세상, 경성의 다섯 마굴」 『별건곤』 1929년 9월, 「대규모 밀매음단」 (동아일보.1925.8.13.)에서는 일본 동경의 마굴을, 「동경한 경성이 마굴(동아일보. 1925.4.1)에서는 식민지 조선 경성의 마굴 사건을 다루고 있다.

13) 이에 대한 연구로 차혜영, 「개벽사 경성 표상의 정치학, 『별건곤』 1929년 9월 대경성 특집

해, 경성, 동경의 도시 이야기, 일본의 고현학 소재의 일부로서 단골 소재로 존재하고 예측되었다고 할 수 있다.(이를 이순탁도 인지하면서, 독자의 섣부른 예측을 경계하고, 동행한 동료 심군을 설득한 이야기를 싣고 있다.)

이순탁은 일본을 전유하는 기존의 이런 표상방식과 단절하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극도의 번성을 누리는 긴자와 마루노우치 빌딩으로 대표된 사치와 쾌락의 도시라는 이미지, 그리고 닛포리 빈민굴 이미지, 기존에 식민지 조선에서 이렇게 부와 빈의 양극적 이미지로 이원화된 대중적 동경 표상(긴자와 마굴)을, '프로그람을 짜가지고 매일 조사를 나가'면서 의식적으로 단절하고, 새로운 동경 인식을 명확히 표명한다. 그가 일본의 현재를 판단하는 기준은 경제, 생산력, 발전이다. 긴자의 화려함은 비즈니스가 잘 돌아가고, 소비력이 있다는 반증이며, 선정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빈민굴은, 일자리 할당제, 민간복지단체와 관이 결합되어 진행되는 빈민관리 시스템으로서, 조선보다 우월한 최소한의 삶의 질이 보장되고 있는 현장인 것이다. 이를 통해 그는 조선과 일본, 식민지와 지배국을 가르는 민족주의적 심리, 빈부의 열패감, 선정적 호기심과 단절하면서, 일본이라는 국가가 펼치는 경제정책과 관리시스템에 더 관심을 보인다. 이는 앞서 서정익의 논의대로 무역을 통한 경제회복이라는 현실 외에도, 국가주도 통제경제 주장과 정책, 그 통제경제에 긍정요소로 기대된 '온정주의'적 면모와 닿아있다고 할 수 있다.[14]

호 연구, 『동학학보』 37호(2015.12), 오미일, 「일제강점기 경성의 중국인거리와 '魔窟' 이미지의 정치성」, 『동방학지』 163호, 2013 참조

14) 통제경제와 오펜하이머를 원용한 온정주의(복지)는, 1939년 이순탁의 '전향록'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후술하고자 한다.

3. 먼 곳의 우리도 바뀌어야 한다, 상해 한인사회의 교체와 중국 혐오-상해

이순탁이 여행기 내내 여러 번 강조하듯 이 시점은, 세계 경제상 엄청난 격변의 시기이다. 서두에서 언급했듯, 이 시기 아시아는, 1920년대 3post(제1차 세계대전 이후, 1917년 소비에트 혁명이후, 3.1-5.4운동 이후) 시대 일본의 국제협조주의 외교 시대 및 베르사이유` 워싱턴 체제가 종말을 맞고, 세계적 대공황 및 이에 대한 일본의 대응이 중국침략으로 나타나면서 이 지역에 격렬한 변화를 만들어낸 시기이다.

한편 중국 내부는 남경국민정부가 북벌을 완성하고 통일을 이루어 손문 이래 혁명을 완수 하고 자주적 외교권 회수를 향해 나아가면서 국민국가로서의 위용을 갖춰가는 시기였다.[15] 1920년대 내내 진행된 중국의 북벌 및 통일 완수, 혁명외교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진보적 경향을 유지하던 1920년대 조선의 언론-동아일보, 『개벽』, 조선일보-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이슈였고, 주요한과 이관용 등 특파원을 파견해 북벌을 완성하고 통일 국가를 이룬 신중국 취재기를 장기간 연재하고 인터뷰와 기행문을 보내기도 했었다.[16] 1930년대 전반은 외교권 회수(조계 열강의 특권 폐지)라는 중국 국민국가의 방향과 일본의 중국 침략에 따른 중국 민중들의 배일 반제국주의 운동이 퍼져나가던 시기이다. 일본은 만몽 특수권익을 주장하며 중국의 혁명외교-열강의 조계내 특권폐지-에 가장 격렬하게 저항하고 무력으로 침탈하는 방식으로 만주사변, 만주국 수립, 상해사변

15) 박제균, 「중국국민당의 민족주의 이념과 혁명외교」, 『중국근현대사연구』 31집, 2006 참조

16) 주요한, 이관용의 일련의 장기 연재물 참조, 이에 대한 연구로는 김세호, 「북벌직후 신흥 중국에 대한 일 시각-조선일보 특파원 이관용의 취재를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61, 2016, 김세호, 「1920년대 한국언론의 중국국민혁명에 대한 반응-동아일보특파원 주요한의 「신중국방문기」(1928-1929) 취재를 중심으로」, 『중국학보』 제40집, 1999, 이기훈, 「1920년대 『동아일보의 중국인식-계몽과 혁명, 식민과 탈식민주의 시각의 부침과 교차」, 『동방학지』 178, 2017. 3월 참조

등을 일으켰고, 이 과정에서 중국 민중의 지속적이고 강렬한 반일 민족주의 저항이 장개석 정부를 압박하고, 장기간 일화배척(배일, 보이콧) 운동이 지속되는 상태였다.[17] 중국과 일본에서 이 시기는 격증하는 중국 민족주의(대중적, 민족적 통일된 정서)와 일본의 경제적 이권, 남경국민정부의 대일온건책과 외교권 회수 운동이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시기였다. 이순탁이 일본을 떠나 첫 번째 경유지 상해에 도착한 것은 이러한 현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순탁의 상해 여행기록은 기존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조선인 상해 표상, 상해 여행기와 매우 다른 면모를 보인다. 한국근대 문화사 및 문학표상에서 알려진 '식민지 조선인의 상해 표상'은 대략 세가지로 묶일 수 있다. 첫째 근대초기 이래 지속적으로, 상해가 초행인 여행자들의 기행문에서, 상해 외탄거리의 압도적 위용을 자랑하는 서양풍 건물로 대표된, '동양의 파리'로 불린 '국제도시'의 이미지가 그것이다. 둘째 '정치적 상해'로서 불령선인-식민지 조선인으로서 상해 해관에서 겪는 경험 및 혁명중인 중국에 대한 인상과 정치적 메시지를 내포한 것으로, 1920년대 여행기에서 많이 나타난다. 세 번째 1930년대 『삼천리』, 『조광』 등 대중종합지에서 유포된 에로`그로와 매춘부들, 비밀스러운 환락, 아편으로 대표된 상해 뒷골목 이미지, 마적 경험담 등 기상천외한 모험담 부류가 있다. 이 세 번째의 상해 이미지는, 조선에서는 1930년대 중반 이후 대중잡지에서 주로 나타났지만, 사실상 이러한 상해 표상의 기원적 출처는 사실, 일본에서 1920년대에 생산된 '마도상해(魔都上海)'류의 기행문들이다.[18] 이후 일본에서는 쿨리, 걸인, 도박, 매춘, 아편 등은 근대 일본의 상하이 관련 서

17) 김지환, 「만주사변기 중국의 일화배척과 재화일본 방직공업」, 『평화연구』 13-1, 2005, 강진아, 「중일무역마찰의 전개와 조중관계의 변화」, 진재교 외, 『근대전환기 동아시아 속의 한국』,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04 참조

18) 무라마쓰의 『마도』, 『상하이』, 『지나만담』, 『신 상하이 방문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서는 이수열, 「근대일본 작가의 상하이 체험」, 『일본지식인의 아시아 식민도시 체험』, 선인, 2018, 25면.

적의 단골 주제가 되었다.[19]

이런 기존의 상해표상과 다르게, 이순탁은 첫째 전적지 관광과 일본상품 불매운동이 벌어지는 현장을 직접 조사했다는 경험과 객관성을 강조하며 상해 표상의 변화를 주장한다. 둘째 상해한인사회의 지도력 교체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한다. 이 두가지 특징은 지역표상 분야에서도, 여행기에서도 보기 드물게, 경험적 구체적 서술과 강력한 주관적 정치적 주장을 동시에 개진하는 면모이다.

1) 상해사변의 전적지(戰跡地)와 일화배척(日貨排斥)을 보는 시선

〈중국의 인후(咽喉)인 상해〉 라는 소제목으로 시작되는 상해 지역 여행기는, 1840년의 아편전쟁과 1842년의 남경조약 이후 개항장이 된 상해 역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 이후, 가장 초미의 관심사였던 바로 직전 해에 있었던 상해사변(1932)의 흔적을 찾아보는 것으로 시작된다.

> "때(상해사변)는 1932년 정월이라. 진즉 얼크러졌던 일`중의 관계는 급속히 악화되어 소위 상해사변이 폭발하였다. 격전 2개월에 재중 각국 공사의 알선으로 정전은 되었으나 각국 군대의 손해 특히 중국군 측의 손해는 당시 신문의 보도에만 의하더라도 듣기에 끔찍하였던 것이다.....나는 당시의 광경을 실사해보겠다는 호기심으로 선상에서 모 일본인의 지시(안내)로 오송포대 부근부터 점검한다.....그 견고한 요새를 자랑하고 중국의 전 국토 보전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던 이 오송포대는 일본군 필사의 포격으로 인하여 드디어 점령된 것이다. 이 포대가 점령됨으로부터 중국군은 비로소 총퇴각하여 전쟁은 정지되고 사변은 일단락지은 것이다.....강만지, 묘행진, 개장 등지를 찾고자 했더니 이 지점은 거의 다 복구되어서 전쟁의 자취로 볼만한 것이 없다하므로 그만두고"-39

19) 和田博文,『言語都市`上海: 1840~1945』, 藤院書店, 1999 참조

상해사변 당시 전쟁의 참상, 중국 지역의 피해사례, 특히 일본인과 조선인이 구분되지 않아서 중국 민간인으로부터 린치를 당한 사례 등 전쟁의 잔혹함과 파괴력에 대해서는 당시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20] 이순탁은 기사로 읽은 전쟁의 참혹한 흔적을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과 호기심에서, 일본인의 안내로 전적지를 찾아 위와 같이 기술한다. 오송포대는 중국의 총퇴각과 일본의 승리를 불러온 가장 중요한 전승지이다.

또 이순탁의 상해 경유지 기록에서 주목할 지점은 일화배척 상황에 대한 그의 시각이다. '중국의 목구멍(咽喉)'으로 표현한 상해를 벗어나며, 이순탁은 중국 전체에 대한 다음과 같은 원색적인 경멸과 초조한 비난으로 마무리 한다.

> "나는 일직이 직목삼십오(直木三十五)씨가 저술한 소설『일본의 전율』이란 책을 읽은 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직 잊히지 않고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은 '지나인은 아무리 보아도 사람이 아니니, 그들은 인간의 형상을 한 동물이다.'라 한말이다. 과연 그런가, 참으로 그럴까하는 제목을 내버리지 아니하고 있었다.
>
> 그런데 내가 횡빈에서 상해로 향할 때 선중에서 어떤 독일인도 나와 같이 중국이야기를 하다가 꼭 같은 말을 하였다. "chinese is nothing, no nationalism, no idea, no charity, no sympathy, etc." 이에서 나는 직목(直木)씨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보는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났다. 이뿐 아니라 상해에서 서행(西行)하는 승객도 누구나 중국인

20) 당시 신문 기사 일부의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상해사변 이래 일본군의 손해, 육해군 합 2000명', '상해사변 중국 측 손해 십오억팔백만원', '상해사건의 확대와 열강' '상해사변과 미가(米價)의 관계'(동아일보, 1932년). 동아일보 계열의 종합지『신동아』는 기획 특집으로 신언준의 보고기가 예정되었으나, 검열로 싣지 못했고, 거기서 경험한 피천득의 인상기로 대체된 바 있다. 실리지 못한 동아일보 상해특파원 신언준의 전쟁 관련 보도는 이후 동아일보 등에 게재되었다. 민두기 엮음,『신언준 현대중국 관계 논설선』, 문학과지성사, 2000

의 악평을 아니하는 이가 없다.

어찌하여 이러는가, 내가 중국을 평할 만한 자격은 어느 편으로 보든지 조금도 없겠지마는, 이제 저네들의 평을 듣고 생각해본즉 랏슬도 말했거니와 실로 저들에게는 애국심이 업다. 돈이면 그만이다. 돈만주면 나라도 판다. A)북방장령이 일본군에게 대항하겠다는 통전(通電)도 싸울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B)중앙정부에서 돈을 얻고자 하는 야심에서 나온 것이요, 일화(日貨) 배척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애국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한갓 매명성금하겠다는 데서 나온 것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너무도 혹평이라고 말할 이가 있겠지마는 사실에서 별로 멀지 않다. “ -43

위의 글에서, 이순탁은 일본인과 서양인들이 보인 중국인에 대한 편견을, 학자로서 견제하려하는 듯하면서도, 기실 러셀의 의견을 끌어오면서, ‘사실에서 별로 멀지 않다’라고 긍정하고, 편견을 오히려 보편화하는 논리를 보여준다. 특히 밑줄 친 A)와 B)가 중국 동북 지배자였던 군벌 장학량의 역치와 반일, 이를 통해 남경정부의 통일과 국민국가의 수립의 전기가 되었던 사실을 지시하는 것이라 할 때, 더구나 서두에서 언급했듯, 상해사변을 통해 장개석 정부의 대일온건 대응에 대한 중국 대중들의 거센 비판과 반일 민족주의, 일화배척(반일 보이콧) 운동이 격화되던 상황을 염두에 둘 때, 위에서 이순탁이 보여주는 중국인 혐오, 중국의 반일 민족주의를 애써 깍아내리려는 초조감, 냉소, 혐오감은 예사롭지 않다. 이런 중국인 혐오는 다음과 같이 자신이 직접 본 경험을 서술하며 중국인의 열등성에 대해 경멸과 비난을 퍼붓는 것으로 나아간다.

“내가 영안공사(永安公司), 신상공사(新上公司)등 중국인 거대 백화점을 견학했고, 중국물산만 파는 대륙상장을 참관했다. 과연 표면에 나타나는 일본제품은 일부러 찾았으나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직도 일본의 대중국 무역이 세계각국의 대중국 무역중 제 2위를 점

한다는 것과 재중국 일본인의 각종 공장이 휴업 없이 작업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표면에 나타나는 상표만 변경하면 되는 까닭이다. 그네들은 정신이 없으며 생각이 없으며 자비심이 없으며 동정심이 없다고 하는 독일인의 평도 다 이런 것을 보고 하는 말이다.

장강 이재민 구제금이 중간에서 다 사라졌으며 동북의용군의 권장 의연금이 뉘 손에서 사라졌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이네들이다.....아편의 해독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여 요추(要樞)에 있는 인물들도 아니 먹는 사람이 거의 없으며, 회뢰(賄賂)의 폐해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여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사법기관까지도 회뢰의 다소로써 흑백을 판단한다는 것은 부패라 할까 미개라 할까" -44

그는 상해의 대형 백화점을 견학하고는, 실제 당시 일본 경제가 부딪힌 가장 큰 위기[21], 중국에서의 일화배척(일본상품 불매운동)의 현장을 직접 조사` 목격한다. 그런데 일본이 중국 시장을 잃을 위기, 일본 경제의 생명선이라는 중국 동북부를 거듭 침략하고, 상해까지 침략하고 있던 1931년, 1932년, 이런 일본에 저항하던 중국인들의 항일민족주의 운동을 목격하면서, 그는 위와 같이 초조하고 원색적인 감정으로 중국인들의 일화배척의 두 얼굴을 비난한다. 즉 겉으로 드러난 일본상품 불매운동은, 항일 애국 대중심리에 영합한 상표 바뀌치기일 뿐, 일본의 대중국 무역은 건재하다. 그들의 항일 애국운동도 사실은 지방 군벌들이 돈을 타내려는 것뿐이다. 그들은 애초에 "정신이 없으며 생각이 없으며 자비심이 없으며 동정심이 없다", "저들에게는 애국심이 업다. 돈이면 그만이다. 돈만주면 나라도 판

21) 이것은 그가 인도 서술 부분, 영국 여행 부분에서 자주 언급한 것으로서, 세계의 블록 경제화 경향 및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항일애국주의와 일화배척 운동이 야기한 일본 시장의 위기이다. 이는 당대 언론에서도, 여행기 내내 이순탁도 계속 주목하던 이슈였다. 필자는 이순탁에 관한 이전 논문에서, 당대 동아일보의 '국제면 경제관련 특집 연재기사'만을 별도의 장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이를 다른 장의 이순탁의 여행기의 유럽인식과 대조하며 논의를 진행했다. 차혜영, 「1930년대 자본주의 세계체제 전환과 동아시아 지역패권의 지정학-이순탁의 『최근세계일주기』를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24-3, 2016.12

다."라고 지독하게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는다.

그는 세계적으로도 일본에게도 가장 우려스러울만큼 전개되는 중국 민족주의의 현장에서, 일본이 벌인 팽창주의적 침략전쟁 앞에서, 바로 이런 상황을 애써 모른 척하며, 오히려 중국 민족주의 부재, 애국심의 부재를 강변한다. 중국인들의 항일애국운동이 만들어낸 일본경제의 위기 앞에서의 이런 회피, 증오, 저주에 가까운 경멸과 비난은, 위기 앞에 몰린 자의 초조한 불안과 원색적 혐오감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또한 중국을 사실은 정복해도 되는 땅, 지킬 의지도 정신도 없는 주인이라고 보는 생각이다. 사실은 만주사변, 상해사변, 중일전쟁까지 이어진 일본의 중국침략 논리에 다름 아니다. 그런 논리, 그런 시선을, 이순탁은 중국인들의 항일애국주의 일화배척의 현장, 그것이 야기할 일본 경제의 위기, 일본이 벌인 침략의 현장 앞에서, 그들은 인간의 형상을 한 동물"이며 "아편"과 "뇌물"로 얼룩진 "미개" 라고 퍼붓고 있는 것이다. 중국을 향한 이런 비이성적인 인종적 편견, 이 초조한 비난과 혐오는 대체 어디서 기인할까?

이를 추측하기 위해서는 먼저 메이지유신 이래 오랫동안 중국에 관한 지식과 담론을 생산해온 일본사상계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인종적 편견에 기초한 일본의 전통적인 대륙정책으로서 중국 세력권 확대 및 영토적 침략론이다. 둘째 이런 대륙침략에 대한 비판으로서, '일지경제제휴론'이 그것이다. 첫번째의 가장 오래되고 일반화된 중국혐오론 및 중국침략의 논리에 해당되는 것으로 소위 '지나통(支那通)'으로 알려진 야노 진이치라든가 나이토 고난 등 오래된 일본인 중국사학자의 논리가 이에 해당된다.[22] 두 번째, 중국의 국민국가를 인정한 상태에서, 양국의 자유무역에 기초한 중국시장확보라는 '일지경제제휴'론은 대정기 일본에서 저변화된 바 있다. 그러나 이시기는 1930년대는 소화 전쟁시기로서 일본이

22) 박훈, 「일본인 중국 사학자의 중국인식과 '공동체론'-협중의 기원」, 『동아시아문화연구』 73집, 2018.5, 이형식, 「'支那通'의 중국인식과 대중정책-교토학파 야노 진이치를 중심으로」, 『사람』 58, 2016

중국침략으로 방향을 선화하는 시점이다. 이시기는 일지경제제휴론 대신, 저변에 있던 전통적 대륙침략논리인 인종적 중국혐오론이 다시 전면화되어 중국침략 논리와 결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국에서 기업활동을 벌이는 일본인 사업가들의 이해관계-일화배척 상황의 직접적 피해자인 일본기업가집단-의 요구가 전쟁 논리와 결합되기도 했다. 소위 중국체류 일본인 기업가 집단인 '재화방'의 기업이익 논리와 중국혐오가 결합된 것이다.[23]

이순탁의 중국혐오, 인종적 편견, 일화배척 상황의 위기감과 '일본경제는 끄떡없다'는 위의 태도는 일본에서의 1930년대 전통적 혐중인식과 전쟁논리, 그리고 '재화방' 일본 기업가의 시좌가 결합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우가키 총독 시대 전개된 조선공업화와 농공병진, 그리고 당시 '만주붐'으로 유행처럼 번진, 만주국을 통해 조선 경제의 확장 및 발전 가능성에 대한 조선인 자본가와 미디어에서 유포된 기대, 대중정서의 호응과 '붐' 등 조선인 측에서 누리게 될 중국경기의 혜택이라는 이해관계 상의 변화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24]

즉 이시기 세계가 4개의 블록 장벽으로 나뉘는 것이 '세계대세'라고 파악된 시점, 식민지 조선의 자본주의 발전, 생산력 확대를 가치로 선택했을 때, 엔블록 내에서 식민모국의 자본의 이익과 식민지 자본의 이익이 동일하다고 판단`선택했을 때, 중국을 바라보는 이와 같은 시선 변경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

23) 송가배, 「1920년대 말 1930년대 초 상하이 일본인 거류민 사회의 중국 인식과 정치 행동」, 『아세아연구』 66, 2023.6

24) 지수걸 「1930년대 전반기 부르주아 민족주의자의 '민족경제 건설전략-조선공업화와 엔블럭 재편 정책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51, 2003, 이송순, 「1930~40년대 일제의 통제경제정책과 조선인 경제전문가의 인식」, 『한국사학보』 17, 2004.7월, 송규진, 「만주사변이 조선경제에 미친 영향-대만주국 무역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105, 방기중, 「1930년대 조선 농공병진정책과 경제통제」, 『동방학지』 2003 등 참조

2) 해외 조선인의 모범적 성공사례와 새로운 민족지도 원리

그의 상해 여행에서, 상해 전적지를 비롯해 경유지 시내 관광을 안내해 주는 사람은 모 일본인과, 조선인으로는 옥혜관[25], 신국권 두 사람이다. 실제 이순탁은 〈조선인과 상해〉라는 소제목으로 상해에서 활동하는 인물 중 성공한 기업가로서 옥혜관(옥관빈)을 거듭 강조하며 가장 길게 서술한다. 그가 소개하는 옥관빈은 독일, 중국, 동남아, 조선을 연결하는 무역업자로서, 거의가 가난하고 무직자인 상해 조선인 동포 중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기업가이자, 해외진출 성공사례이다. "옥씨는 지금 상해의 중심지에 삼덕양행이라 하는 독일 무역업과 불자약창이라 하는 약종상을 경영하는데 공칭 자본 30만원을 가진 거상"이다. 그러한 "옥씨는 상해의 실업계에서 우리로서 능히 상상하지 못하던 활동을 하는", "조선 내 동포의 직접, 간접 성원과 마음 있고 활동해보고자 하는 사람의 분기를 촉구하고 싶"은 상해 조선 동포의 모범사례이다.

> "우리 조선사람이 상해에 내왕하기 시작한 연대는 ..... 40년은 될 것이다. ....지금 상해에 거주하는 수효는 천명 내외라 한다. 그리하여 대부분은 무직이요, 유직자라도 생활에 여유 있을 만한 직업에서는 거의 발견키 어렵다고 한다.
>
> 내왕 40년에 상해에 상당한 A)생활의 근거를 가진 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특유한 사정을 시인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경제적 활동이 너무나 무력하다는 것을 나는 상해에 와보고 더욱 통절히 느꼈다. ....
>
> 나는 조선사람의 모험적`진취적 기상에 결핍하다는 것과, 선배들의 민족지도원리가 틀렸었다는 것과, 당파투쟁의 악성을 탈각하지 못했다는 세가지 원인이 중요한 동인이겠다고 생각했다. 우리의 실업인이 어찌하

25) 옥관빈의 중국 내 사업의 상해사변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당시 『동광』 지 등에 보도. 유광열, 「상해와 조선인」, 『동광』, 1932.3

여 해외의 시장에 눈을 뜨지 못하며, 우리의 선배들이 어찌하여 원대한 민족지도의 원리를 생각지 못하며, 우리의 민족이 어찌하여 당파의 폐독(弊毒)을 깨닫지 못하는고.

B) 내가 이렇게 말하면 혹자는 정치적`경제적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박할 이가 있을것이지마는 어떠한 이유를 들든지 나로서는 도저히 수긍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

나는 이러한 의미에서 상해에서 유일한 조선 사람으로서 자랑을 가진 신국권, 옥혜관 양씨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다."-41

요컨대 상해 조선인 동포의 오랜 역사 속에서 그가 꼽는 본받을 만한 조선동포는 옥관빈이 유일하며, 그 이유와 기준은 사업해서 돈 많이 벌어 성공했다는 것, 기업가로서의 진취성, 모험심, 경제적 성취라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제시하는 이 새로운 기준에서 어긋난, 지금껏 상해 조선인 동포 사이에 존재했었던 민족지도원리는 틀렸다고 격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이순탁이 새로이 강조하는 조선인 자랑(성공사례)와 과거 민족지도 원리가 틀렸다는 이 주장을, 왜 이 시점에 여기서 이토록 강력하게 말하는가? 당시는 만주사변, 상해사변, 만주국 성립, 이로 인해 중국 대도시, 특히 상해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일본상품 불매운동 및 항일 애국주의 시위가 이어지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상해사변에서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고, 이 때문에 여행자마다 전적지를 찾아보려 할 만큼, 중국의 피해는 극심했었다. 이런 일`중 관계가 '침략전쟁'으로 단절적 변화를 보인 바로 이 시기에, 이순탁이, 상해에서 기존(1919~1932) 조선인사회를 유지해온 '과거 조선인 민족지도원리'를 비난하고, 새로운 지도원리로서의 옥관빈을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서 주목할 것은 조선(조선인)과 상해의 관계설정상의 변화이다. 여기에는 조선인이 기존에 관계맺고 있던 상해와 이후 새롭게 관계 맺게 되

는 상해 사이에 단절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 단절은 앞서 언급한 대로, 우가키 총독 시대 전개된 조선공업화와 농공병진, '만주붐', 만주국을 통해 조선 경제의 확장 및 발전 가능성에 대한 조선인 자본가와 미디어에서 유포된 기대, 대중정서의 호응과 '붐' 등 조선인 측에서 누리게 될 중국경기의 혜택이라는 이해관계 상의 변화가 있다. 즉 중국 및 상해가 이제부터의 조선인에게 "경제적 기회의 땅"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런 조선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상해의 새로운 설정 외에, 당시 시점 1933년의 중국 및 상해 조선인 사회의 '정치적 변모'와 연관지어 살필 필요가 있다. 이는 당대 언론 검열에서 많이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조선인 모두가 알고 있던 변화를 고려해야한다. 만주국 성립 및 상해사변 전승을 축하하는 일본인 거주구역 홍커우 공원에서의 윤봉길의 폭탄테러(1932년)사건[26]과 이로 인한 대검거와 탄압으로, 3.1운동 이후 10여년 상해에 거류했던 임시정부가 내륙으로 퇴각했다는 사실이다. 임시정부의 퇴각 및 조선인 검거와 도피 이후 상해 조선인 인구구성의 변화, 상해 조선인 동포 사회나 조선인 단체의 친일단체로의 변화, 만주국 수립 이후 일본어 교습의 붐 등, 상해 한인 사회 내부는 친일화, 상업주의화로 격렬한 변화를 보인 시점이다.[27] 참고로 이 때문에 중국 조선인 동포에 대해

26) 식민지 조선에서의 통제된 언론 보도와는 달리, 당시 중국에서는 관보 및 민간신문 거의 전체에서 이 사건을 연일 상세히 보도했다. 사건의 초반부터 검찰 취조 상황까지, 상해사변 일본인 전범들의 사망과 피해, 안창호 입건과 김구의 발표문 게시 등에 이르기까지, 상해사변에서 중국의 치욕을 조선의 젊은이가 대신 갚아 준 영웅적인 행위로 보도했고, 이는 중국의 반일 내셔널리즘에 상승적으로 작용했었다.(한시준, 「윤봉길의사의 홍구공원 의거에 관한 중국신문의 보도」,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2집, 2009). 그러나 이런 사실은 당시 식민지 조선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었다. 동아일보 등의 기사는 대부분 덴츠발 해외통신으로 사건보도형 간략한 기사가 대부분이었다. 후일 이런 상황이 알려진 것도, 나아가 윤봉길 사건을 계기로 비밀 조직이나 비밀 지원의 형태로 한중연대독립운동이 재개되었다는 것도, 사실은 대한민국 성립 이후 '저항적 민족주의 독립운동사'라는 카테고리 내에서 조명 발굴되어 온 것이다.

27) 손과지, 『상해한인사회사(1910~1945)』, 한울. 2001

1920년대 후반까지 논의 되었던 입적` 탈적 이슈는 만주국 수립 이후 만주국 공민권 획득문제로 변경되기도 했다. 요컨대 상해 조선인 인구의 감소(상해내 일본인 인구의 세계 최대 비율 증가), 만주지역 조선인 인구의 증가, 상해 조선인의 급격한 친일화 및 생계형 상업화로의 변화, 그 이전까지 존재하던 민족적` 정치적 색채의 전멸에 가까운 축소가 일어난 시점이 바로 1932년 이후이다.

이순탁이 여행한 1933년의 상해 조선인 사회는 바로 이런 환경이었다. 그러니까 식민지 조선 '내부'에서는 엔블록 내에서의 만주발 부흥과 발전에의 기대, 농업식민지에서 벗어나 조선공업화의 기대가 증가하고, 상해 한인사회(외부-먼 곳의 우리)는 기존에 10여년 지속된 정치색으로부터의 퇴각이 명확해지던 시점, 이것을 근본적으로 견인하고 보장하는 일본의 중국침략이 일어난 시점인 것이다.

여기서 이순탁이 주장하는 틀린 과거 민족지도원리는 1920년대 내내 지배했던 민족적, 정치적 독립 지향의 지도원리일 것이고, 그가 보기에 과거 선배들이 생각지 못한 원대한 민족지도원리는 기업가적, 경제적 성취 지향일 것이다. 그가 당파의 낡은 독(弊毒)이라 한 것도 임시정부에 항상 따라다녔던 기호파, 서북파 등의 분열(지방열)이나, 무장독립운동이나 테러 등의 의열단식 운동이나 밀정 처단행위들에 대한 비난일 것이다. 그는 밑줄 친 A)와 B)같이 상해 임시정부 중심의 조선 동포 지도 원리에 대한 비판이, 기행문을 읽을 독자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할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민족주의 비판과 상업적 발전지상주의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와 연관해서 실제로 그의 상해 경유지 기록이 다른 1920년대, 1930년대 통틀어 상당수 여행자들의 상해 경유지 기록과 가장 차이나는 지점은 바로 이 상해의 '마중자- 안내자'이다. 이순탁은 '경유지 마중자-안내자'에서 조선인 여행자들이 가졌던 민족주의적 공통성과 완전히 단절한다.[28] 1920년대는 말할 것도 없고, 1930년대에도 국제선 선박 이용 세계여행자

들은 상해에서, 항구에서부터 불쾌한 경험-불령선인으로서 짐뒤짐을 받는 해상경찰서의 경험-, 프랑스 조계에서 나오기로 한 조선인 마중자(안내자)-언론인(상해 특파원), 임시정부 인맥, 유학생 등이다-를 맞는 것을 첫 경유지의 경험으로 기록하는 것이 공통적이었다.

그러나 이순탁의 경우, 1932년의 상해사변의 전적지 관광을 모 일본인과, 상해에서 성공한 기업가- 14년간 내내 일제의 밀정설에 휩싸여 있던-옥관빈의 안내로 진행하고, 이것이 독자의 민족주의적 정서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노출하며 글을 쓰고 있다. 이는 해외 조선인 네트워크에 진입하는 매우 적극적인 태도 변경이다. 그는 매우 의도적이고, 당시로서는 과감하게 14년간 일제의 밀정설에 휩싸여있던 옥관빈[29]을 모험적, 진취적 기상을 가진 성공한 기업가로 모범화하고, 과거 민족지도원리와 명백한 단절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식민지 조선인이 아시아 특히 중국 지역을 여행하거나 체류하면서 그 지역에 대해 갖는 관점, 이미지, 인식 등에서 이 '격변' '단절' 그

28) 여행자들 대부분은 해당 지역에서 최대한 동포를 찾고, 미리 연락도 취해 낯선 곳에 동포들이 마중 나와 관광이나 현지 안내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 경우 그 낯선 곳에서 현지 동포와 만났을 때 주로 반가움, 회포, 그리웠던 정, 고국소식에 함께 눈물 흘리기 등 다분히 타지에서 느끼는 민족적 일체감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이는 해외에서 감각되고 확인되는 해외 조선인 네트워크의 민족적 경로의 성격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차혜영, 「대공황 이후 블록경제하의 유럽여행과 서구시좌의 변경, 1936년 정인섭의 유럽여행체험에 대하여」, 『비교한국학』, 2015.12, 79~81면 참조

29) 실제로 옥관빈의 경우 14년 내내 밀정설이 따라다녔고, 이순탁이 상해를 떠난 후 얼마 안되어 아나키스트에 의해 암살당했다. 김광재에 의하면 '밀정설'은 실제 밀정일 수도 있고, 지방열과 분파주의로 인해 독립운동 세력 내 상대방 파벌에 씌우는 오명과 분파싸움의 방식이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이호룡은 1930년대 이후의 아나키스트의 암살 테러 행위에 대해, 독립운동이면서 동시에 자기파괴적인 허무주의로 기운 경향이 공존했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참고로 옥관빈은 1919년 이후 상해에 들어간 이래 지속적으로 안창호 파에게만 신뢰를 쌓았고, 다른 계파들에게는 독립운동자금 등을 거부하는 면모 등을 통해 1919년 이래 암살당할 때가지 지속적, 간헐적으로 밀정설이 따라다녔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김광재 「옥관빈 밀정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근현대 중국관내지역 한인사 연구』, 경인문화사, 2016, 이호룡, 「아나키스트들의 민족해방운동」,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45, 2008

자체는, 1930년대 초반 당대 미디어에서도, 소위 상해 표상이나 중국 표상을 연구하는 이후의 연구사 속에서도 그다지 부각되지 않았다. 후자의 지역 표상의 연구들은 식민지 시대 전체 1920~30년대를 통틀어 미디어의 표상을 통합적으로 취급하고, 문학적으로 해석하면서 1932년 전후의 '변화' '단절'에 주목하지 못했다. 역사 연구에서는, 중국 지역에서의 독립운동, 민족해방운동의 관점이 우선시되면서, 당시 중국-북벌, 통일, 국공분열, 혁명, 내셔널리즘, 국민국가화를 거치며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고비마다-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과 표상에 일어난 1932년 기점의 변화 그 자체는, 연구대상으로 설정되지 않았었다. 상해의 한인사회를 연구한 중국인 학자의 경우[30], 다양하고 치밀한 중국 측 실증자료를 사용해, 1932년 기점 상해 한인사회의 성격 변화를 주목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상해 한인사회 내부의 변화를 주목한 것이다. 당시 식민지 조선인이 포착한 이곳 상해의 '변화'가 무엇인지,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알려진 자료도 많지 않고, 주목된 바도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순탁이 기록한 상해 경유지 표상은, 개화기 이래 지속된 서양풍의 물질문명을 동양에 실현한 '국제도시', 그 공간 내에서 3.1/5.4운동기 이후 1917년 소비에트 혁명 이후(3post 시기)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등 각종 자유로운 사상적 지향이 공존했던 '자유도시'라는 상해의 이미지에, 새로운 역사적 사실태를 추가`환기하고 있다. 1932년 이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서양 열강의 세력권에서 일본 세력권으로 변모해간 상해[31], 그리고 그곳의 한인사회의 정치적`경제적`일상적 변모가 일어난 상해라는 지역을 추가`환기하고 있는 것이다. 잊혀진 협곡 같은 그 단절과 극단적 변모를, 그리고 한 조선인 경제학자가 그 변모를 어떻게 수용하고 승인했는지를 흔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0) 손과지, 『상해한인사회사(1910~1945)』, 한울아카데미, 2012

31) 이런 중일전쟁기 일본권 상해의 풍경에 대해서는, 『색`계』로 잘 알려진 소설가 장아이링의 작품들이 있다.

4. 연결된 외지(外地)들, 따뜻한 시장과 자원개발의 미래-동남아시아

여행기는 상해를 벗어나 동남아시아로 접어들면서 홍콩, 싱가폴, 말라카 해협의 페낭을 경유한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일본에서는 남양으로 광범위하게 분류되었던 지역이다. 일본의 남양관, 남진의 관점에는 두가지 코스가 존재한다. 하나는 오키나와- 타이완-중국의 화남 지방-동남아시아에 이르는 코스이고, 다른 하나는 미크로네시아-태평양 코스이다. 전자는 외남양으로서 자유무역에 근거하는 통상입국적 관점에서의 남진론-남양관이고, 후자는 내남양으로서 1914년 1차세계대전 이후 위임통치한 독일령 미크로네시아제도이다.[32] 이순탁 및 조선인이 경유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은, 통상입국적 관점에서 오랜 시간 일본 경제권이 세력을 확대해온 지역이다.

여행기에서 그는 이 지역에 대한 개략적인 지리적 역사적 소개 이후 자신이 직접 겪은 개인적 체험 위주로 기술한다. 첫째 홍콩에서 만난 임훈이라는 조선인 동포에 관한 이야기이다. 해외 조선인 동포의 근황에 대한 이순탁의 관심은 특별하다. 앞서 언급했듯 가장 많은 동포가 가장 오랫동안 존재하면서 해외민족운동의 근거지로 자리매김되었던 상해와 미국에 대해서는 이 해외조선인 서술에서 배제하거나 격렬하게 비판했다. 반면 유럽, 동남아시아 지역 등 해외조선인네트워크가 기존에 발달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조선인과의 연결을 찾아 기록하는데 심혈을 기울인다. 홍콩의 임훈은 후자에 해당된다.

> “홍콩에는 임훈씨라는 유일한 우리 동포가 상업을 경영한다. 임씨는 아산 출생으로 기미년 후에 중국을 거쳐서 싱가포르에 가서 상당한 근거

32) 이수열, 「근대일본과 미크로네시아」, 『일본지식인의 아시아 식민도시 체험』, 선인, 2018, 164면.

를 가지고 상영(商營)을 하다가 어떤 사정으로 작년에 이곳에 왔다는데, 명년쯤은 다시 싱가포르로 가겠다고 한다.....이국만리 수많은 외국인 중에 섞이어서 조선말로 하루를 보내게 되는 심사는 무어라고 말하기 어려운 기쁨이었다."-48

이순탁은 임훈의 안내로 홍콩 구룡시가, 홍콩대학, 은행, 관청 등을 방문한다. 홍콩과 싱가폴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조선인 동포의 후의, 조선어로 나누는 대화는 이토록 먼 곳, 낯선 기후 낯선지역에서 그곳의 동포 덕택에 어떤 고향의 감각을 일깨운다. 상해 직후의 다음 경유지 홍콩에서 임훈을 만났기 때문에 옥관빈의 연락으로 만났을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다.[33]

둘째 싱가폴 래플스 대학과 박물관 방문 에피소드이다. 동남아시아에서 느낀 따듯함은 싱가폴에서도 경험하지만 이 따뜻함은 해외 조선인 네트워크가 아닌 해외 일본인 네트워크에 접속하면서 느낀 기쁨과 충족감이다. 그는 싱가폴 '레플스 기념 박물관' 구경을 마치고 나왔을 때 특별한 경험을 한다.

"날씨는 찌는 듯이 더운데 관람을 마치고 나온 즉 말레이 인 수위가 "당신 일본 사람이지요. 나는 대단히 좋아하오. 일기가 더운데 빙수 한잔 먹고 싶소" 하고 다소의 팁을 청하는 듯하다. 나는 기뻐하는 얼굴로 일금 42전을 꺼내 주었다. 몇 번이나 감사하는 뜻을 표한다."55-56

이어서 그는 'Raffles College' 라는 학교를 구경하던 중 "풀 깍는 인도

33) 그러나 홍콩에서 이순탁이 만난 임훈은 아산 출신이라 언급하고 있으므로 동일인임을 확인하기는 힘들다. 김광재, 옥관빈의 상해 망명과 실업활동」, 『근현대 중국관내지역 한인사 연구』, 경인문화사, 2016, 168면. 옥관빈이 상해에서 1921년 '여덕양행', 1922년 '배달공사'를 설립했을 때 베를린 지점장(경리)로 진남포 출신 임훈을 언급하고 있다.(동아일보, 1921.12.2. 배달공사백림지점)

거인이 '누구냐'한다. 나는 못 드러올 곳을 들어와서 어떠한 질책이나 듣지 않나" 걱정하면서 명함을 건네주고, 이어서 이 학교의 'chief secretary'를 만난 경험을 쓴다.

> "(명함을 주고) 나를 소개하고 방문의 뜻을 표한 즉, 기꺼워하는 듯도 하고, 반가워하는 듯도 하면서 작년에 자기학교 졸업생인 이등태랑(伊藤太郎)이란 사람이 조선 대구농회에 취직했다고 보내온 문서를 보여준다. 그리고 일본글 공문(公文)번역의 옳고 그름을 묻는다. 여러 가지 안내를 해주어서 뜻밖의 견학을 마쳤다.....나는 방문 명부록에 조선인 최초의 자필서명을 마친 후 그분께 인사하고 돌아왔다"-55-56

첫 인용문에 언급된 일화의 저간의 맥락은, 싱가폴 시내 자유관광을 하는 중, 박물관 말레이인 수위는, 아마도 말끔하게 차린 황인종 신사를 보고 '당신 일본사람이지요'하고, 자기는 일본을 대단히 좋아한다고 하고 빙수 한잔 값을 청한다. 돈있는 관광객에게 미소와 친절을 보내고, 팁을 받는 동남아시아 원주민은 드물지 않은 일이다. 이순탁은 자기를 '일본인이라고' 아는 척 해주고, 신사 대접해주는 그 말레인에게 여유있는 관광객으로서 팁 정도는 기쁘게 베푼다. 또 방학 중인 조용한 대학을 구경할 때는, 학교 사무실에 안내 받아 일본인 졸업생의 근황, 그 일본인 졸업생이 여행자 이순탁의 고향 대구에 취직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일본어 공문 번역을 가르쳐 주고, "학교의 방문명부록에 조선인 최초의 자필서명을 마친 후" 돌아 나온다.

이 일화 속에서 동남아시아는, 잠깐 머문 낯선 경유지가 아니다. 또한 조선인 세계 여행자상당수가 거의 유사하게 기록한 오리엔탈리즘적 풍경 - 기항지에서 검은 피부로 바닷 속에서 헤엄치며 돈을 구걸하는 원주민 무리-을 바라보는 구경꾼의 감각과도 거리가 멀다.[34] 그가 머문 동남아시

34) 차혜영, 「지역간 문명의 위계와 시각적 대상의 창안」, 『현대문학의연구』 24, 2004. 10

아는, 들어가서 체험하고 우리의 자리, 나의 자리가 확장되는 경험을 한 뿌듯한 감각이다. 동남아시아는 그에게 홍콩, 싱가폴, 일본, 조선, 하위 노동직 말레이인 수위, 잔디깍는 인도인 등이 함께 존재하는 장소이다. 현지인은 일본인 졸업생을 인연으로 그 낯선 관광객과 대화한다. 일본국적자로서, 적어도 일본령 소속에서 왔기에 받는 친철과 미소와 기대(팁)를 받는다. 생략된 행간 속에 아마도 번성해가는 일본에 대한 부러움과 존경이 전제되어있고, 갈수록 동남아권에서 증가해가는 일본의 경제적 영향력을 실감했을 것이다. 또 동시에 조선인으로서, 싱가폴에 유학한 어느 일본인이 취직해 간 고향 조선 대구, 이렇게 싱가폴이나 조선은 일본의 '외지(外地)'[35]로서 서로 연결되어있다. 그곳은 익숙함과 따스함이 공존하는 나와 우리가 확장된 감각을 잠깐이나마 제공해주는 곳으로 이순탁에 의해 새로 구성되는 장소이다. 이 연결된 '외지(外地)'에서 이순탁은 방명록에 "조선인 최초의 자필 서명"을 남기기도 한다. 이처럼 경유지 동남아시아는, 조선과 일본이라는 '지나간 1920년대식 낡은 민족 구분'을 한걸음만 벗어나면, 그 구분이 흐릿해지는 일본경제 블록의 가능지역이다. 그곳에서의 에피소드는 그 일본경제권 엔블록의 일원으로, 연결된 외지들의 일원으로 정체성이 구성되는 경험을 보여준다.

35) 1918년 4월 17일에 시행된 공통법에 따라 일본 제국의 내지(內地)와 외지(外地)에 대한 구분이 명확해졌고 이는 1945년 8월까지 지속되었다. 공통법 제1조에서는 공통법이 시행되는 지역을 내지(일본 본토), 조선, 대만, 관동주, 남양 군도로 정의했다. 동남아시아 지역이 이 공통법에 따른 외지에 법적으로 속하지는 않는다. 1차세계대전 후 패전국 독일령이였던 남양에 대한 일본의 위임통치 이후 일본령이 된 미크로네시아 제도를 일컫는다. 그러나 일본의 공식적 외지인 조선인의 입장에서, 해외 여행의 여로상에서 1차대전 이후 확장된 일본의 해외시장 진출, 이에 따른 영향력의 확산의 실상을 확인하는 정서를, '외지의 일원'이라는 감각으로 해석했다.

5. 가지 않고 쓴 곳, 빼앗긴 시장-인도와 만주

1) 인도-적의 적은 친구인가?

인도양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유지를 통과한 이후, 항로상 다음 경유지는 인도이다. 그러나 이순탁은 인도에 착륙하지 않았다.

> "금번 여행에 가급적이면 인도를 방문하려고 생각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계획을 세워보았으나, 하나는 런던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회의를 며칠간이라도 보고 싶은데 인도를 들르게 되면 15일이 걸려서....또 하나는 인도를 방문하려면 싱가포르나 피낭에서 배를 바꿔 타고 캘커타로 가서 거기서 인도대륙을 횡단....그 비용이 약 700원이 들게 된다. 이러한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나는 인도를 바라다만 보고 눈물을 머금고 돌아섰다."-67

위의 인용문과 같이 이순탁은 실제로는 인도에 가지 않았지만, 기존 연구자들이 인도를 여행했다고 착각할 만큼[36] 인도에 대해서 매우 상세히 쓰고 있다. 가지 않았고, 따라서 본 것도 없으면서 그가 열정적으로 상세히 쓴 내용은 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첫째 일본 면제품에 대한 덤핑 판정 및 통상조약 파기 문제이고, 둘째는 인도 국민운동에 대한 견해이다.

〈피낭에서 콜롬보`아든 지나 수에즈에〉에서 처음으로 언급하는 테마는 "일`인(日印)통상조약 파기 선언"이다. 인도가, 자국에 수출되는 일본 면제품이 가진 저렴한 가격에 대해 덤핑판정을 내린 것이고, 이를 근거로 일본과 인도간에 유지된 최저율 관세 및 최혜국 대우를 파기하는 것이다. 이런 인도의 조치를 이순탁은, 겉으로는 인도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하지만, 사실은 인도에서의 영국산 면제품과 일본산 면제품의 경쟁에서, 고가

36) 홍성찬, 「한국근현대 이순탁의 정치경제사상 연구」, 『역사문제연구』 창간호, 1996

의 영국산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영국의 랭카셔 면업 자본가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는 특히 일본 제품이 가진 저렴한 가격경쟁력에 대해, “일면 기술의 진보 및 경영 판매 정책의 발달과 타방면 위체(환율) 하락 때문에 인도 시장에서 능히 2할5푼의 특혜관세율을 가진 영국제품과 대항해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그동안 일본의 기술개발과 경영합리화를 통해 발전해온 정당한 일본의 성취에 대해, 영국의 보호무역주의를 기반으로 한 덤핑 판정은 억울하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일본 면제품의 세계시장 상실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표현하고 있다.

> “게다가 만일 대영경제블록이 권내에 이 같은 고율의 세를 일본 면제품에 과한다고 하여 애급, 영국령 동서아프리카, 남아프리카연방, 호주, 캐나다, 해협식민지 등에도 적용이 되기로 한다면, 일화 배척과 일`중 관세협정 만기 때문에 이중으로 중국 시장을 잃은 일본의 면직업은 전멸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요컨대 일본 경제에 있어서는 가위 치명상의 타격이다. ”-63

인도라는 원료 공급지=상품 판매시장을 놓고 일본과 영국이 대치한 상태, 이 덤핑판정을 시작으로 대영제국블록으로 확산될 경우,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이래 일본이 착실하게 세계시장을 개척해 왔던 구 영국 지배권 시장을 상실할 위기, 더구나 앞서 언급했듯,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본상품 불매운동(일화배척)과 항일애국주의 운동의 영향으로, 중국 대륙 시장을 잃어버릴 위기 등, 일본 경제의 치명상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순탁은 자신만의 개인적 의견과 판단을 개진한다. 그의 개인적 판단의 내용이 특이한 것은 일본 산업 걱정이 인도의 국민적 이익으로 치환되는 사고의 전개이다.

“(아직 기술이 미발달된 현재) 인도의 견지로 보면....일`영 양국품을 비교하면 고가인 영국품을 소비하는 것보다는 저렴한 일본품을 소비하는

것이 유리한 일" 이며, 면제품의 원재료인 원면을 영국에만 수출하는 것보다는 일본에도 수출하는 것이 .....농업보호상 필요한 일일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라면서, 통상조약 파기가 일본에도 치명상이지만, 인도 국민적 이익, 즉 인도 소비자 선택권과 인도 방적연합회로 대표되는 약소민족 인도의 산업경쟁력에 불리하다고 서술한다. 이는 그가 영국의 랭카셔 면업지대를 여행하면서 "영국에서는 이러한 점령지 상업의 보호가 일`인 통상조약 파기의 목적이라 하지마는....기실은 영국의 산업보호가 제일이요, 점령지 산업보호는 차라리 부차적인 것 같다."고 상기한다.

이러한 해석 판단 속에서, 영국의 식민지 약소민족 '인도의 국민적 이익'과, 세계시장 확보가 시급한 '일본의 경제적 이익'은 일치하는 것이다. 영국이라는 공통의 적을 갖는, 피식민지 인도와 경쟁자 블록(파운드 블록에 대항하는 엔블록) 일본이 한편이 되는 것이다. 이는 이순탁이 인도의 국민운동지지 및 영국의 이간책으로부터의 탈피 주문으로 곧바로 이어진다.

> "나는 배 안에서 인도 국민운동가의 한 사람으로 미국 각지에서 유세하다가 돌아가는 길에 있는 모트와니씨를 만나서 대화 한 일이 있다..... 이 운동은 어느 때나 성공하게 될는지 모르나 A)<u>시기의 진전은 영국으로 하여금 인도의 고혈을 빨게 할 날도 멀지 않게 한 것 같다. 이날에 이르면 노영제국(老英帝國)의 갈길은 어디일까.</u>
>
> 나는 인도 국민운동이 하루 속히 강령을 달성하기를 바라나, 원컨대 인도 국민이여, ... B)<u>영국의 이간정책으로부터 회개하라</u>. 그렇지 아니하면 국민운동의 성공할 날도 묘연하며 그대의 고혈은 더욱 바쳐질 것이다."-66-67

밑줄 친 B)의 영국의 이간책으로부터의 탈피하라는 말은 '일본 면제품 덤핑판정은 곧 영국의 계략'이라는 말이다. 식민지 조선의 경제학자 이순

탁은 일본의 경제적 이익에 동일화된 시선으로, 약소민족 인도의 반영국 민운동[37]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약소민족 인도의 반영 독립운동이 A)와 같이 '역사의 필연'이라는 관점과 그것이 '일본 면업의 수출시장이자 동시에조선의 번영'이라는 감각이 동전의 양면처럼 결합하고 있는 것이다.

식민지배국 일본과 조선을 일본블록(엔블록)이라는 경제적 이익 공동체로 설정하면서, 인도에게 경쟁자인 영국블록(파운드 블록)에 대항하라고 주문하는 '인도국민운동 지지'는 과거 1920년대식의 민족주의나 약소민족 연대의 시각으로 볼 수 없다. 엔블록과 파운드블록간의 대결, 거기에 식민지 독립운동의 종속적 배치-조선은 엔블록 내부로, 인도는 파운드블록에 저항하라-는, 이시기 국민국가적(민족국가)적 프레임과 경제적 패권 프레임이 교차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2) 만주(= 제네바 국제연맹 회의장)

이순탁의 여행기에서 언급된 아시아 지역 중, 실제로 가지 않고 씌어진 지역으로 또 만주가 있다. 중국 지역 중 경유지로서 상해를 들렀을 뿐 만주는 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순탁은 유럽 '스위스' 여행에서, 제네바 국제연맹회의장을 가장 길게 서술하면서, 그곳에서 벌어졌던 만주국불승인안 결의 풍경을 기술하고 있다. 즉 물리적 지역은 유럽의 스위스 인데, 그곳을 '만주를 놓고 벌인 서구와 일본의 전쟁터'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일`중 분쟁의 현장'으로 서술한 첫 번째는 앞서 본 상해, 두 번째가 '스위스 국제연맹 회의장(외교적 전쟁터)=만주(무력 전쟁터)'

37) 이옥순- 인도국민운동이라는 명칭 - 1920년대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인도의 민족운동에 대해 -민족운동, 독립운동(1925), 혁명운동(1927), 반영운동, 반영불복종운동(1930)으로 명명하다가 언론탄압이 강화된 1934년 이후에는 '인도국민운동'이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지칭했다고-정대철, 인용 -이옥순-『식민지 조선의 희망과 절망, 인도』, 푸른 역사

이다.

그는 스위스에서 1933년 6월29일부 7월 2일까지 머물렀고, 아름다운인 터라켄, 비 때문에 등반하지 못한 융프라우, 베른의 박물관 이야기를 간략히 언급한 이후, 스위스의 거의 대부분의 분량을 〈외교의 중심 지니버(제네바)〉, 〈국제연맹본부〉, 〈이름 좋다, 군축회의〉의 소제목으로 국제연맹에서 '리튼 보고서'를 둘러싼 만주국 승인불가 사건을, 감정적 격앙을 실어서 길고 상세하고 처연하게 서술하고 있다. 〈국제연맹 본부〉는 그에게 "일`중 문제와 외교전쟁의 살아있는 현장"이다.

> "1931년 9월 18일 유조구(유조구)의 철로 침목 파괴 사건이 근인이 되어서 돌발한 일`중 문제는 결국 1932년 2월 11일 만주국 성립, 1933년 2월 24일 일본의 국제연맹 탈퇴, 1933년 6월 7일의 국제연맹의 만주국 불승인 결의를 불러왔다. 이러기까지에는 A)동에는 군사전쟁, 서에서는 외교적 전쟁이 이어졌는데, 이 외교적 전쟁은 실로 국제연맹 본부 내에서였다"-141

이순탁은 "「리튼보고서」를 중심하여 일`중 문제의 최후를 결정할 연맹총회의 전초전의 막인 19개국 연맹이사회가 열리던 데를 1932년 11월 21일"의 광경을 눈에 보이듯 상세히, 각국의 대표들의 이름과 좌석 배치, 일본 측 송강 대표와 중국 측 고대표의 연설 요점, 그리고 "저 유명한 '십자가 상의 일본'이라는 송강 대표의 연설"이 행해진 12월 8일, 이후 이어진 연맹탈퇴와 만주국 불승인을 기술하고 있다. 이런 만주국 문제를 당대 언론의 표현대로 "일`중 분쟁"으로 기술하는 태도는 그 어느 곳보다 지극히 감성적이다. 세계여행기의 성격상 어느 정도 낯선 지역에 대해 관찰과 기록이 우선됨에 비해, 이 부분은 "나는 이 무대를 참관할 때 참담한 폐허지라는 감상과 동시에 당시의 광경이 얼마나 살풍경이었던가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라든가 "1932년 11월 21일의 광경이 안전(眼前)에

아른아른한다.” 처럼, 현장성과 감정이입, 처연한 슬픔의 감정이 농후하다. 특히 만주국 불승인안이 통과되는 42:1의 표결결과를 42:1로 공격받은 것으로 서술해가는 논조가 그러하다.

이처럼 그는 직접 가지 않은 만주(‘자위적 특수권익지대’)를, 직접 간 제네바 회의장에서 일중 외교 분쟁 현장에서 억울하게 빼앗긴 곳으로 전유한다. 이곳에서 우리(일본=조선=나)는, 서구 여러 나라들에 장막처럼(좌석배치) 둘러싸여, 42:1로, 홀로 외롭게 억울하게 쓰러진(십자가), 서구의 희생양으로 표상되고 있다. 이를 ‘참담함’, ‘폐허’, ‘살풍경’의 언어로, 지금 눈에 보듯, 독자들이 모두 알고 있고 함께 느끼는 것을 전제하는 ‘저 유명한’, ‘아른아른하는’, ‘피부로 느낀다’라는, 현장적 동시간성의 감각으로 되새기고 있다.

스위스 여행시점인 1933년 6월 29일은 최종적 만주국 불승인안이 결의된 6월 7일로부터 바로 몇 주 뒤이다. 밑줄친 A)와 같이 동쪽 만주에서 군사적으로(그러므로 정당하게) 이겼지만, 서쪽 스위스 국제연맹에서 억울하게 패했다는 감정을 이러한 동시간성과 현장성 감성으로, 저자인 이순탁과 이것을 읽고 있는 것으로 전제된 독자공동체와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감정공동체 속에서 일본, 적어도 일본 경제의 사활이 달린 국제적 심판과 결정이 내려진 직후의, 그 패배의 부당함, 억울함, 참담함을 공유하고 있다.

6. 결론-민족에서 블록으로의 전환 사이, 협곡 혹은 틈새

이순탁의 여행기에서 아시아 지역은 서구 및 세계정세 파악 이후 ‘그럼 우리는?’이라는 질문과 대답 속에 단행본에서 추가되어 서술된 지역이다. 실제로 1930년대 세계경제 변화의 시기에, 아시아 지역 곳곳은 일본의 전쟁 선택에 의해 거대한 전환을 맞이했고, 일본권 내에 속한 조선인의 아

시아 관계방식도 많은 변화를 보였다. 본고는 경제학자 이순탁이 이 변화를 어떻게 수용해, 아시아 인식을 수정 전환해갔는지를 그의 세계여행기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순탁이 여행하는 아시아 지역 기록은, 일본경제 블록의 일원으로서 나-우리의 범위를 설정하는 시선으로, 상해, 동남아, 인도 등의 지역을 살피고 비교하고 견주는 과정이다. 이 지역 표상은 각 지역에 대한 이전시기까지의 '정치적' 인식과 표상이 파탄나고, '경제적' 이익권역(패권, 블록)으로 분할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새롭게 설정된 경제적 공동체의 기준으로 인해, 지역에 대한 익숙한 전유나 표상이 변화하고, 겉보기에는 약소민족 지지가 유지되는 듯하지만, 심층에서 그 기준선이 변경되는 등, 세계의 변화와 나-우리의 위치설정에서 격렬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의 아시아 인식에는, 일본의 경제적 이익이 벽에 부딪히며 선택한 중국 침탈, 동남아 시장 확대 노력으로 이어지는 경로에 대한 동의와 긍정이 일관되게 관철되어 있다. 그가 아시아 지역 여로 중 상해경유지에서 드러낸 중국에 대한 생경하고도 원색적인 혐오, 비난, 인종적 편견, 민족주의에 대한 이중잣대, 초조한 두려움은 이런 동의와 동일화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또 이는 상해조선인사회의 이전시기(1919~1932)의 민족주의적 지도력과의 단절 및 기업가적 발전 지향으로의 변모 요청과도 연결되는 기조이다. 한편 그가 동남아시아 지역의 개인 경험 에피소드를 서술하는 우정, 환대, 공존의 정서는, 일본의 외지들의 연결이라는 감각하에 자기를 배치하는 정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인도와 만주 서술에서 드러난, 일본의 해외시장 상실에 대한 위기감, 만주국 불승인안 결정에 대한 억울함의 정서는, 이순탁의 아시아 지역 관찰과 서술의 깊은 중심축으로서 일본 대외 시장의 사활에 깊게 동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의 대외시장 위기를 조선-자기의 위기로 전환, 수용하는 이 감각은 곧 '자기상'을 민족에서 블록 내부로 전환하는 감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민족에서 블록으로의 중심축의 변경'은, 기존의 '민족주의'

가치가 상위의 '블록'에 따라 재배치되면서, 지금 관점에서 보면 매우 모순적이고 기이한 인식으로 보이기도 한다.

예컨대 여전히 일본의 무역대상국으로 설정된 인도의 경우는 엔블록과 파운드블록간의 대결하에 인도 식민지 독립운동의 종속적 배치가 일어난다. '인도여, 영국의 파운드 블록에 저항하라, 그것이 역사의 필연이다.'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반면에 일본의 영토침략의 대상인 중국의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인종적 편견과 혐오를 드러낸다. 그리고 상해한인사회에 대해서는 옥관빈 사례를 새로운 모범으로 설정하면서, 기존의 식민지 민족주의적 가치와 결별하고, 경제적 생존 중심 가치로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

이처럼 겉보기에 지역마다 나라마다 비일관되게 적용되는 것 같은 민족주의에 대한 이중잣대는, 이순탁의 혼돈이나 변덕이나 비논리가 아닌, 경제학자로서의 매우 논리적인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38] 이 시기 세계가 4개의 블록 장벽으로 나뉘는 것이 '세계대세'라고 파악된 시점, 식민지 조선의 자본주의 발전, 생산력 확대를 가치로 선택했을 때, 엔블록 내에서 식민모국의 자본의 이익과 식민지 자본의 이익이 함께한다고 판단 선택했을 때, 중국 및 아시아 지역을 바라보는 이러한 시선 변경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아시아 지역을 바라보는 이런 전유방식은, 1920년대와도 다르고, 해방

38) 앞서 서두의 각주에서 언급한 '연희전문경제연구회 사건'과 '원산민족해방전선 사건(경성제국대학 출신 맑스주의자 이강국 등 연계)' 은 전시체제로 돌입하면서 일본이 내부단속의 일환으로 벌인, 대표적인 좌익 지식인 구속 사건이다. 좌우를 막론하고 진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지식인은 사상전향록을 제출하고 출옥한다. 이순탁이 제출한 '사상전향록'에는 "대규모 생산은 경쟁의 범위를 좁게 하여, 용이하게 수요될 상품을 예측함으로써, 생산에 통제를 행하기 쉽다, 또 온정주의의 발로, 사회정책의 실시, 통제경제의 강화...."라고 하면서, 전향의 논리로 내세운 것이 통제경제론이다. 전향좌파 지식인에게 통제경제는 사회주의 이론과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도 있다. 함께 투옥되었던 노동규, 백남운, 이순탁은 전향의 논리로 '통제경제'를 공통적으로 서술했다. 이에 대해서는, 홍종욱, 「식민지 아카데미즘의 그늘, 지식인의 전향」, 『사이間SAI』 2011, 11월, 116면.

후 국민국가를 이루어 온 현재, 우리에게 익숙하게 저변화된 저항적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매우 낯설고 이질적이다. 또한 월북한 맑스주의자라는 이념적 일관성의 서사에서도 역시 불편한 단절이기는 마찬가지이다.[39]

지역을, 땅을, 영토를 객관화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혹은 객관화하지 않더라도 그 지역을 기술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결국 어느 편인가 서야만 구체적으로 보인다. 어느 편인가를 선택하기를 유예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 시점에서 가장 일반화된, 따라서 가장 힘 있는 입장에 자기를 의식적/무의식적으로 동일화한다는 것일 것이다. 식민지 시기 지역 전유에서 오리엔탈리즘 시각이 그토록 다수를 차지한 것도, 보편성이라는 프레임으로 의식적, 무의식적, 정서적으로 서구편에서 지역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순탁은 그 어떤 여행자보다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역인식을 보여준다. 이 구체성은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어느 편인가를, 자신의 현재와 미래 방향을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일 것이다. 식민지의 경제발전이 최우선이라는 경제적 선택, 그 경제발전은 식민모국의 그늘 속에서 안전하게 확보된다는 판단이다.

그리고 이것이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다는 판단은 민족적 관계를 너머, 더 큰 단위의 국가주도 통제경제가 더 효율적이라는 1930년대 세계적 흐름, 그 흐름에 대한 예리한 관찰과 인지가 전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경험과 관찰에 근거한 세계의 새로운 변화에 민감했고, 그 변화된 세계의 흐름에, 나와 내공동체를 빠르게 정위시키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1933~34년 그가 세계여행에서 목격한 미국의 뉴딜과, 독일, 이탈리아의

39) 필자는 「발전론과 사회주의-3post 시기- 3.1세대의 눈으로 본 사회주의 혁명:김준연, 이순탁, 장덕수, 나경석」, 『근대문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문』, 2018.12.20.에서 4명에 대해 개략적으로, 대정기 사회주의 이론을 접했고, 당대 담론장에서 '변절자 프레임'에 갇힌 바 있으며, 사회주의에의 접속/이탈에 세계(외부) 체류 경험을 갖고 있고, 해방기 한반도에서의 발전모델 경쟁이 벌어질 때의 선택의 경우들에 대해 시론적 발표를 한 바 있다. 이는 추후의 연구과제이다.

작은 성공사례,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무역지대 밖에서 성공을 구가하는 국가주도 통제경제의 성공사례인 당시 소련 경제 등, 세계는 바야흐로 이런 거대한 전환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40] 이러한 상황을 판단했을 때, 일본이라는 국가주도 통제경제로의 전환의 승인과 복속 요청은, 이순탁은 물론, 일본 혁신좌파들 역시 일견 매우 논리적인 차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익이 바뀌면 생각이 바뀐다. 그 바뀐 생각은 나와 적의 지도를 새롭게 만들어낸다. 조선과 일본이, 중국을 동남아시아를 동일하게 바라보는 이러한 시선 변경은, 경제적 이익이라는 합리적 이해타산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순탁 여행기의 아시아 여로 기록은, 대공황 이후, "일본 패권 내 동아시아 지정학", 그러니까 이익선에 따라 새로 그린 지도의 변경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이 새로 그린 지도 위에서, 식민모국의 패권 확대에 자기위치를 설정한 식민지 경제학자의 중심축 이동을 통해, 나-우리의 경계를 새로 그린 1932년 전후의 전환의 풍경을, 그 잊혀진 협곡의 틈새를 불편하게 드러내 보여준다.

40) 칼 폴라니, 『거대한 전환』, 길, 2009

| 참고문헌 |

1. 주요텍스트

이순탁, 『최근세계일주기-일제하 한 경제학자의 제국주의 현장답사』, 1997, 학민사.
조선일보, 이순탁 여행기 연재본, 1933.9.8~1934.4.13.

2. 참고문헌

김광재, 『근현대 중국관내지역 한인사 연구』, 경인문화사, 2016.

김세호, 「1920년대 한국언론의 중국국민혁명에 대한 반응-동아일보특파원 주요한의 「신중국방문기」(1928-1929) 취재를 중심으로」, 『중국학보』 제40집, 1999.

_____, 「북벌직후 신흥 중국에 대한 일 시각-조선일보 특파원 이관용의 취재를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61, 2016.

김지환, 「만주사변기 중국의 일화배척과 재화일본 방직공업」, 『평화연구』, 2005.

박제균, 「중국국민당의 민족주의 이념과 혁명외교」, 『중국근현대사연구』 31집, 2006.

박훈, 「일본중국사학자의 중국인식과 공동체론-협중의 기원」, 『동아시아문화연구』 73집, 2018.5.

방기중, 「1930년대 농공병진정책과 경제통제」, 『동방학지』 120,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3.6.

서정익, 「세계대공황기(1929~1936년) 일본의 무역구조와 무역정착」, 『응용경제』 5-1, 2003.6.

손과지, 『상해한인사회사(1910~1945)』, 한울아카데미, 2012.

손승회, 「만주사변 전야 만주한인의 국적문제와 중국`일본의 대응」, 『중국사연구』 31, 2004.

송가배, 「1920년대말 1930년대초 상하이 일본인 거류민사회의 중국인식과 정치행동」, 『아세아연구』, 66권 2회, 2023.5.

송규진, 「만주사변이 조선경제에 미친 영향-대만주국 무역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105.

유신순, 신승하 외 역, 『만주사변기 중일외교사』, 고려원, 1994.

이기훈, 「1920년대 동아일보의 중국인식-계몽과 혁명, 식민주의와 탈식민주의 시각의 부침과 교차」, 『동방학지』 제178집, 2018.3.

이송순, 「1930-40년대 일제의 통제경제정책과 조선인 경제전문가의 인식」, 『한국사학보』 17호, 한국사학회, 2004.7.

이수열, 『일본지식인의 아시아 식민도시 체험』, 선인, 2018.

이시카와 요시히로, 손승회 역,『중국근현대사』3 (1925~1945), 삼천리, 2013.
이옥순,『식민지 조선의 희망과 절망, 인도』, 푸른 역사.
이형식,「지나통 야노진이치의 중국인식과 대중 정책」,『사림』58, 2016.
이호룡,「아나키스트들의 민족해방운동」,『한국독립운동의 역사』45, 2008.
지수걸「1930년대 전반기 부르주아 민족주의자의 '민족경제 건설전략-조선공업화와 엔블럭재편정책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국사관논총』51, 1994.
차혜영,「1930년대 일본체험 회고담 연구1, 로맨스의 공통기억과 식민지의 문화적 위치」,『한국언어문화』46집, 2011.12.
_____,「대공황 이후 블록경제하의 유럽여행과 서구시좌의 변경, 1936년 정인섭의 유럽여행체험에 대하여」,『비교한국학』, 2015.12.
_____,「1930년대 자본주의 세계체제 전환과 동아시아 지역패권의 지정학-이순탁의『최근세계일주기』를 중심으로」,『비교한국학』24-3, 2016.12.
_____,「3post 시기 식민지조선인의 유럽항로 여행기와 피식민지 아시아연대론」,『서강인문논총』47, 2016.12.
_____,「식민지 조선의 언어민족주의자, 인도양 위에서 약소민족을 만나다. -김선기의「유구도중기(遊區途中記)」(1934)연구」,『비교한국학』31, 2023.12 참조.
카터 에커트, 주익종 역,『제국의 후예-고창 김씨가와 한국 자본주의 식민지 기원 1876-1945』, 푸른역사, 2008.
한시준,「윤봉길의사의 홍구공원 의거에 관한 중국신문의 보도」,『한국독립운동사연구』32, 2009.
홍성찬,「한국근현대 이순탁의 정치경제사상 연구」,『역사문제연구』창간호, 1996.
홍종욱,「'식민지 아카데미즘의 그늘, 지식인의 전향」,『사이間SAI』2011.11.
和田博文,『言語都市`上海: 1840~1945』, 藤院書店, 1999.
B.R.톰린스, 이옥순 역,『인도 경제사 : 탈식민화와 경제학』, 신구문화사, 1994.

<Abstract>

From nation to Block
−Perception of Asia in Lee Soon-tak's 『Recent Round the World』(1934)

Cha, Hye-Young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the Asian region as revealed in Lee Soon-tak's 1934 travelogue 『A Recent Round the World』.

In his travelogue, Tokyo, Shanghai, Hong Kong, and Singapore were added and described in a book in the question and answer 'Then what about us?' after extreme concerns about the changing economic situation in the West, the pound bloc, the gold standard economy, and protectionism. It is a region.

During the period of global economic change in the 1930s, various parts of Asia faced a huge change due to Japan's choice of war,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s within the Japanese region and Asia also showed many changes. This paper examines how economist Lee Soon-tak accepted this change and changed his perception of Asia through his world travel story.

In his travels in Asia, there is deep and consistent agreement and affirmation of Japan's invasion of China and efforts to expand the Southeast Asian market, which were implemented as Japan's economic interests faced a crisis.

This manifests itself in the unfamiliar and direct hatred of Chinese people and the avoidance of Chinese nationalism, criticism, and racial prejudice bordering on hatred, which were revealed during the stopover in

Shanghai. And, starting in 1932, this is a keynote that is connected to the strong argument for a break with the nationalistic political color of the Korean society in China (Shanghai) and a transformation toward commercialistic and entrepreneurial success.

The attitude with which he describes episodes of personal experience in the Southeast Asian region is one of warm friendship, hospitality, and comfortable coexistence. This can be said to be an emotion that places oneself in the sense of connection between Outside of Japan(外地)

In addition, the sections on India and Manchuria, which were written at length and in detail even though he did not visit them in person, revealed his impatience over the crisis of losing the Japanese market and his provocative and rhetorical anger over the decision to disapprove of Manchukuo.

The recognition and records of the Asian region in Lee Soon-tak's travelogue are a turning point in 1932 created by the change in the perspective of colonial economists who positioned themselves in the expansion of the hegemony of the colonial mother country and the change in “East Asian geopolitics within Japanese hegemony” after the Great Depression. It shows well.

This way of thinking about the Asian region is a very heterogeneous disconnect or rift, different from that of the 1920s and from our resistant nationalism after liberation.

Records of Asia as a stopover for Europe-bound travellers, including Lee Soon-tak's, have a variety of material values that provide a glimpse into the reality of the ‘canyon area where the disconnection occurred.’ This paper examines the Asian region from Lee Soon-tak's travelogue as one of its subjects.

Key words: Nation, bloc, controlled economy, East Asian geopolitics within Japanese hegemony after the Great Depression, Soontak Lee, Ok Gwan-bin, European route, Asian stopover, economic

survivalism, First Shanghai Incident, Boycott Japanese money, Shanghai Korean Community, Outside of Japan (inside/outside Japan), disapproval of Manchukuo, Abrogation of Japan-India trade treaty, geopolitics of emotions

투 고 일 : 2023년 11월 27일 심 사 일 : 2023년 12월 11일
게재확정일 : 2023년 12월 11일 수정마감일 : 2023년 12월 22일